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국회 차원 전북발전 지원 요청

대공법·공공의대법 개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김관영 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서 현안 건의  
우 의장 “전북, 균형발전 과제 절실... 적극 돕겠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오는 10월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참석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제·개정, 제2중앙경찰학교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원식 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광역교통 시설 지원에서 전북만 소외된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든 지역이 공정한 지원을 통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은 현행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발생과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심각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 1차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제2중앙경찰학교와 관련하여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

될 경우, 지역 균형과 지역소멸 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북은 재정자립도나 지역소멸위기가 깊은 어려운 시기로 균형발전이란 과제가 그만큼 절실하다”며, “지역불균형 문제는 중앙과 국회가 지방정부가 함께 전력해야 하는 문제로 의정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평소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은 국가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국회의장 면담 전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명활동도 함께 진행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을 진행했다. /이만호 기자



25일 서울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고 있다.

## “청년 정착·유입 위해 ‘전북은 매력적인 거주지’ 인식 필요”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문화·주거·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중요

청년의 전북 정착과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정주적 여건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제언을 담은 정책브리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확대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 청년인구는 총 24,236명이 전입했

으나, 3만1,351명이 전출해 순 유출 인구는 7,115명에 달했다.

주요 전출 지역은 수도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충청권과 전라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며, 직업으로 인한 전출 비율은 54.1%에 달하는 반면, 전입은 38.5%에 그쳤다.

이 연구는 특히 청년 여성 인구 감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전북 출신 20~30대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 면접을

통해 청년 여성들이 전북을 떠나거나 다시 정착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들이 전북을 매력적인 거주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전북 이미지 개선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과 여가 시설 부족이 전북의 약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역 내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또한, 주거 안정성, 소아과를 비롯한 의료 확충, 교통 편의성, 안전한 환경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전북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북을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브리프에서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 그리고 청년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페스타 2024, 내달 3~26일 전주종합경기장서

## ‘10월, 더 맛있는 전주’

비빔밥축제·독서대전·막걸리축제 등 병행

전주시가 ‘10월, 더 맛있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준비한 ‘전주페스타 2024’에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과 한지, 독서, 막걸리, 조선잡 등을 매주 다채롭게 선보인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25일 전주 시청 2층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3일부터 2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전주페스타 2024’에서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축제(10월 3~6일)와 전주한지산업대전(10월 11~13일), 전주독서대전(10월 11~13일), 전주조선잡페스타(10월 18~20일), 전주막걸리축제(10월 25~26일)가 병행된다고 밝혔다.

당장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페스타 2024’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축제와 함께한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음식주제관과 5가지의 전주 음식 테마존, 비빔퍼레이드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특히 전주비빔밥축제의 대표 행사인 ‘대형비빔 퍼포먼스’에는 1963년도에 건립돼 MICE산업단지로 재탄생하는 전주종합경기장을 기념하기 위해 총 1,963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한국기록원 기록 등재에도 도전한다.

‘전주페스타 2024’의 둘째 주에는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과 책의 도시로서 다양한 책 콘텐츠가 있는 ‘전주독서대전’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먼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은 그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해 온 프로그램 일부를 종합경기장으로 옮겨 사흘간 확대 운영한다. 행사장에선 공예·문화체험뿐 아니라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초청 제조사연과 지역별 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즈니스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관을 선보인다.

특히 10월 11일 오후 6시부터는 국제한지패션쇼 런웨이가 펼쳐지며, 낮에는 한지 포토존과 밤에는 한지로 비추는 빛의 향연도 만나



볼 수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전주독서대전도 2018년 첫 개최 이래 새로운 장소에서 축제를 맞는다.

‘기술, 책 틈 사이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전주독서대전에는 전주 올해의 책 일반 부문에 선정된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원’의 이주혜 작가를 비롯해 총 6명의 작가 초청 강연(작가의 책 틈)과 전주 문인 이승훈·이준호 작가의 강연(전주의 책 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시민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전시 프로그램과 ‘도서관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북마켓과 팝업스토어 운영까지 행사장이 알차게 채워진다.

이어 셋째 주에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만남 ‘전주조선잡페스타’를 통해 소리의 고장 전주를 만날 수 있다.

전주조선잡페스타에서는 서도밴드와 이희문 등 유명 뮤지션들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예 뮤지션들이 다채로운 조선잡 무대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 넷째 주에는 ‘전주막걸리축제’가 전주페스타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주막걸리축제는 전주의 전통주를 알리고, 전주만의 독특한 막걸리 문화인 ‘막걸리 한식차림’을 모토로 전주를 대표하는 막걸리 업소들이 ‘전주의 맛’을 제대로 담아낸다. ▶2면에 계속

/김옥기 기자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

부안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부안군민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과거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생명·평화의 부안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응원을 받았다.

## 부안군의회

좋은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